

국가 우주·항공·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23. 5. 24

유 창 경 Chang-Kyung Ryoo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원장 /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글로벌 및 국내 방산기업 현황

☛ 대표적인 글로벌 및 국내 방산기업은 우주항공 전문 사업체임

☛ 국내의 경우

- 2022년 기준 86개 방산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0여 업체가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 직간접으로 참여

- 방산분야 실적은 증가 추세, 방산업체 가동율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으나 이익율은 낮아 개선이 필요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억원)		127,611	136,493	144,521	153,517	158,801
영업이익(억원)		602	3,252	4,875	5,675	7,229
영업 이익률(%)	방산업체	0.5	2.4	3.4	3.7	4.6
	제조업 평균	7.6	7.3	4.4	4.6	6.8
가동률(%)	방산업체	69.2	71.2	72.0	72.9	81.4
	제조업 평균	72.6	73.5	73.2	71.3	74.4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2 방산업체 경영분석」

2022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



*출처: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

MT 데이터투데이

국내 우주·항공·방위산업의 문제점

- ☛ 해외 우수 우주항공 기업은 이미 민수와 군수를 같이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방위 산업은 독립적으로 취급되며, 정부가 산업을 주도
 - 주무 부처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으로 업무 분할
 - 부처별로 관계 법령이 다르며 종합발전계획을 부처별로 별도로 수립
 - 부처별 각종 국책사업 간 연계성 부족
- ☛ 산업 생태계가 세분되어 각 산업이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함
 - 부품단위에서 공통 기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방산 각각을 다른 산업으로 분류하여 접근
 - 우주·항공·방산 산업이 대기업-참여업체로 계열화되어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군내 독자적 역할이 제한적임
 - 글로벌 공급망 체계 진입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여전히 미흡

국내 우주·항공·방위산업의 육성 방향

☛ 신설 예정인 우주항공청 기능 확대

-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은 민수분야 R&D 총괄 및 민수산업 활성화
- 인증/안전과 방위산업 분야는 타 부처 소관이며, 연계를 위한 우주항공청 주도의 부처간 실무협의체 필요
- 우주·항공·방산 분야 부처별 정책 수립 주기를 일치시키고, 통일된 조사·분석·평가 틀과 기준 마련 필요

☛ 우주·항공·방산 분야 중소·중견 기업 육성 정책 강화

- 타겟 부품별 민수분야 우수업체 발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절충교역 확대하고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
-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Track Record를 확보 방안 마련 시급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방향

☛ 국내 기업의 기술력 증대 및 Track Record 확보에 총력

- 국내 군용장비에 부품 적용 또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 국내 기업의 RSP 참여, J/V 설립 지원하여 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 확대
- 해외 우수 연구소의 국내 유치 및 공동 R&D를 통한 기술격차 극복

☛ 절충교역 제도 확대 및 선진화

- 현금 직접투자, J/V설립, 연구소 설치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치승수 (Multiple) 반영
- 국제 공동 및 국제 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절충교역 제도의 유연화
- 절충교역의 일정 부분 중소기업 할당 쿼터제 도입

* 국내의 경우 가치승수가 해외에 비해 낮으며, 적용 대상도 제한적임

- 방산 분야: Multiple 1.5 - 3
- 민수 분야: Multiple 1 - 2

* 해외의 경우 직접 투자, Fund 구성, 연구소 설치 등에도 가치승수를 부여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캐나다
 - Cash for R&D or License for IP: Multiple 9
 - Cash to Purchase: Multiple 7
 - In-kind transfer of knowledge and/or marketing & sales support: Multiple 4
- 네덜란드: 공동 R&D 최대 10배
- 노르웨이: 방산분야 투자 최대 5배
- 터키: 신규 투자 최대 4대, 연구기관 현물 최대 3배
- 쿠웨이트: 절충교역펀드 최대 5.5배
- 필리핀: 해외투자 최대 7배



유창경 ckryoo@inha.ac.kr , 010-9420-3751